

“농축산물 할인지원 4월에도 계속”

전북자치도, 대형마트·중소형마트·친환경매장·로컬푸드 등

폭넓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특별한 농축산물 할인행사가 이어진다.

전북자치도는 방곡가적으로 추진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이 4월에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캠페인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크게 3가지 부류가 있는데, 매주 실시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와 주로 명절에 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농축산물 발권 행사로 나뉘어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매주 실시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농림부에서 매주

합인되는 품목을 지정해 1주일 1인 1만원 한도로 20% 할인지원(전통시장 온라인물 2만원 한도 30%)을 하고 있다.

도내에서 참여하는 오프라인 채널로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마트, GS리테일)와 중소형마트(전주마트) 친환경매장(icoop자연드림, 초록마을 전지점)과 로컬푸드 판매점(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사용 금액 별로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 지참후 시장상인회 사무실 등에 방문해 본인확인 후(중복

지급 방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행사는 당초 명절기간에 맞춰 주로 실시하던 행사를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특별히 확대한다.

제로페이 농축산물권 발행은 전통시장의 가맹점에서 30% 할인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품권 구매 행사로, 고물가 상황에 질 좋은 우리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행사 역시 당초 명절 기간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시행했으나, 올해 4월까지 3차례를 추가로 더 발행한 데 이어, 4월 말까지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구매는 간편결제앱인 비플페이, 오케이페이 및 은행앱인 올원뱅크, 신한솔 등 총 17개 앱에서 구매하고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동네 전통시장 가맹점은 ‘지맵’이라는 어플에서 확인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에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이 참여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sale.foodnuri.gor)와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fy.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이 최근 전북대학교 농생명대학의 임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The 칭찬받는 전북농협' 이 꿈꾸는 미래' 라는 주제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The 칭찬받는 전북농협’ 꿈꾸는 미래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전북대 특강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이 최근 전북대학교 농생명대학의 임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The 칭찬받는 전북농협’ 이 꿈꾸는 미래’ 라는 주제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전북농협의 본부장으로써 추진해 가고 있는 ‘The 칭찬받는 전북농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설명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가는 길에 꼭 해주고 싶은 조언으로 이루어졌으며, 딱딱한 내용 전달이 아닌 질문과 대답의 열린 특강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김 본부장은 ‘The’에는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성공하는 사업을 이루고 최종적으로 세상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목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개인에게 적용해도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오늘 설명해 드린 전북농협이 꿈꾸는 미래는 지난 30여년 가까이 농협인으로서 쉬지 않고 걸어왔던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고, “후배들이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는다”라며 특강을 마쳤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수시 배정 해제’ 적극 환영”

전북 건설단체연합회, “새만금 사업 중요성 감안 빠른 결정 내려”

전북 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 재개와 수시배정 예산 해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올 5월까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을 경우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을 한 푼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빠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전북 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시 배정 해제는 우리 전북건설단체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새만금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일정 부분 인정된 결정이다”며 “정부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부 조치를 계기로 “새만금 신항만과 내부개발 등 여전히 수시 배정 예산으로 묶여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건설관련 소재철 회장은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 및 아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투자실적 10조원 돌파,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종 특례 적용 등 전세계 기업들이 주목하는 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왔듯이 새만금 기본계획을 통해 투자환경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이 확대되는 기업 친화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 전문건설, 기계설비, 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운봉농협, 청년농업인 발전 위한 간담회 열어

운봉농협(조합장 오용담)은 최근, ‘청년이 중심되는’의 고학(운봉) 만들기 및 청년조합원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 1부에서는 운봉 공안사당 이학규 훈장의 청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및 생활속 예절 등을 교육하고, 2부에서는 오용담 조합장을 비롯하여 오영석 농협 남원시지부장 최경식 남원시시장 이정린 도의원, 윤지홍·소태수 시의원 등과 60여명의 청년조합원이 참여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오용담 조합장은 “농촌 미래 먹거리의 근간이 될 청년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운봉농협은 청년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한국농어촌공사, 혁신도시 기지제 4월 한 달간 수초 제거 작업 실시

전주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손잡고 전주혁신도시 주민들의 친수공간인 기지제 수변공원을 쾌적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체결한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성 개선과 이종호수 등 저수지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지제는 그간 부영양화와 퇴적토 유입 등으로 인한 수초 및 수생식물의 과잉 번식과 부식으로 인해 해마다 경

관 저해와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시설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4월 한 달간 기지제에 대한 수초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이후 안전간간 등 저수지 내 시설 정비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지제에 대한 환경 및 안전 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지제 수변공원



전주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손잡고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을 쾌적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 시민에게 시원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역혁신 실증프로젝트 선정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북본부)에서 지역 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현안 및 특화 분야, 기업 특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공모사업이다.

이번 기획사업은 각 참여 기관 간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이오진흥원이 주관하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캠퍼스융합기술원이 함께 참여해 농생명산업, 융복합산업, 첨단산업 분야 전략기술 발굴과 더불어 유망기업 연계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육성을 위한 테스트 베드 실증 과제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경

본 사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스페셜업을 육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융복합, 첨단산업 전후방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육성을 위한 완성도 높은 기획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